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9년 3월 15일(금)

(음력 2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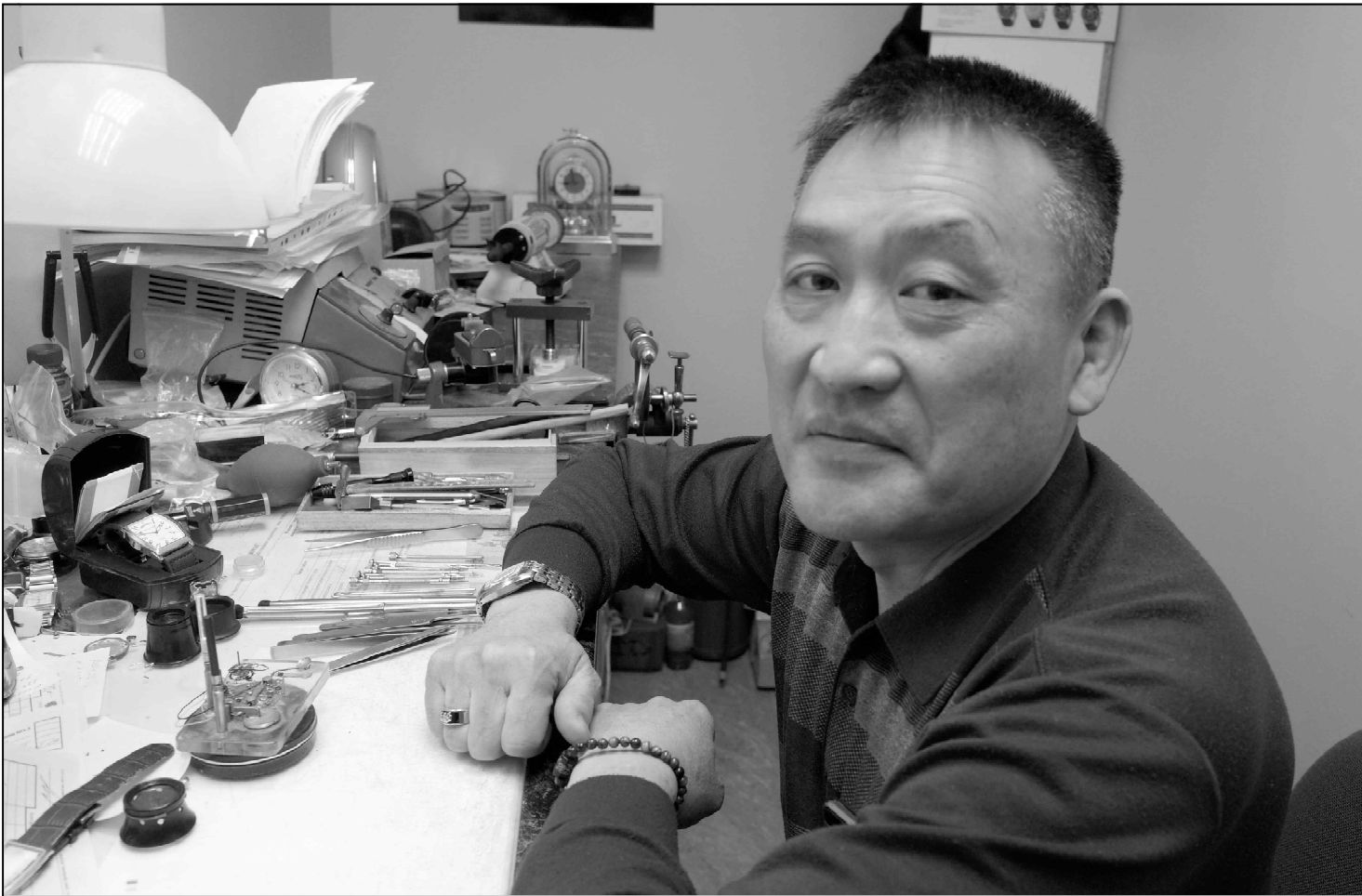
Пятница

15 марта 2019г.

№ 10(116827)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전문직업인의 명절을 맞이하는 서재한 시계공

러시아에서는 3월의 세번째 일요일은 서비스분야 및 주택공공경리 근로자 날로 기념한다. 서재한 씨는 1980년에 일반학교를 졸업한 후 <램비트체흐니카(가전제품수리)>에 시계공 견습생으로 취직하여 시계 수리기술을 익혔다. 1991년부터 <돔 토르고블리>백화점에서 시계공으로 일하고 있다. 한평생을 시계 수리에 바친 빠르고 성실한 서재한 씨는 어떤 시계든 수리할 수 있는 시계수리 장인으로 인정 받고 있다.

(취재: 이에식 기자)

유즈노사할린스크, 향후 학교 및 부속 건물 신축

사할린에서 학교의 2교대 수업을 폐지하는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권한 대행은 향후 사할린주에서 13개 학교들을 신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축 교사는 종합교육의 모든 조건을 갖춘 현대적 시설로 건설된다며 "현재 처음으로 20개 기존의 교육기관에서 건설이 진행되고 있고 이 중 3개 학교가 올해 운영된다. 사할린에 총체적으로 교사를 조속히 신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한 사업은 가장 적극적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이뤄지고 있다.

현재 도심의 몇몇 곳에서 학생들을 위한 신축 학교와 부속 건물들을 짓고 있다. 그 중 3개 부속 건물을 올해 9월에 개교할 계획이다. 부속 건물은 제26중학교와 제1김나지아 초등학교를 위해 건축된다. 480명을 수용할 이 두 건물에는 현대적 기준에

따른 시설(장애 학생을 위한 엘리베이터, 체육관, 넓은 교실과 방과후를 위한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또 하나 보충교육기관으로 예정된 제3김나지아의 부속 건물 신축도 이러한 시설을 갖추게 된다. 달네예에 중학교, 루고워예에 특수학교를 새로이 건축하는 중이며 32학교에도 부속 교사가 신축 중이다. 제2김나지아 같은 경우 20여년간 학교 건물을 제2예술학교와 나눠 사용했으나 제2예술학교가 이 건물을 비우면서 이 교실들은 초등학교 교실로 사용하기로 했다.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은 현대적 교육의 산실을 건축하여 학생들의 발전을 위한 모든 조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표명했다.

향후 이런 정책의 흐름으로 교육시설을 갖추어갈 계획이라고 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사할린주, 암 치료재 구입에 1억5600만 루블리 할당

사할린주에서 종양학 치료재에 추가로 1억6500만 루블리가 할당되었다. 주예산의 자금은 현대적이고 세계시장에 출시된 효과적인 의약품 구입에 사용할 계획이다. 사할린에서 암과의 투쟁을 선포한 가운데 암 치료를 위한 한 주간 화학요법들 과정에 50만 루블리 정도가 들지만 사할린 주민들에게는 무상으로 제공되고 이런 혜택이 아직 러시아의 다른 지역에는 없다. 필수의료보험기금을 통해 올해 사할린주에는 종양질환 치료에 총 10억 루블리가 배당되었다.

(주정부 자료에서)

단신

레닌그라드주에서 사할린-쿠릴 간 여객선 건조

지난 3월 12일 레닌그라드주 뱃스키 선박 건조 및 수리공장에서 사할린과 쿠릴 간 운항할 차세대 화물여객선 건조 착공식이 있었다. 사할린과 쿠릴의 뱃길을 운항할 화물여객선으로 연간 규칙적 정기항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선박 건조는 향상된 냉동화물선을 토대로 하고 있다. 승객 146명 탑승과 냉동고가 실린 화물 운반을 하도록 설정할 계획이다. 갑판에 24개 컨테이너 배치, 6대 승용차 주차 공간, 승객을 위한 식당, 침실, 병원 및 장애인을 위한 필수조건도 갖춘다. 내년 말까지 사할린주를 위해 이 공장에서는 화물여객선 2대를 건설할 계획이다. 두 번째 화물여객선은 한 달 후 건조공사에 들어간다. 두 대를 건조하는 비용은 47억루블이다.

러시아 대통령, 사할린 선수들에게 축전(축하 전보)을

엘레나 코스텐코 사할린 선수가 3월 10일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개최된 제29회 세계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스노우보드 종목 <슬로프 스타일>에서 금메달을 땀다.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사할린 선수에게 축전을 보냈다. 축전에는 "찬란한 우승으로 당신은 개인적인 스포츠상으로 잊을 수 없는 이력을 남겼고 크라스노야르스크 유니버시아드 2019 러시아 대표팀의 메달 '저금통'에 큰 기여를 했다."란 내용이 적혀있었다.

24회 세계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2019년 3월 2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었다. 러시아 선수들은 바이애슬론, 알파인스키, 컬링, 크로스 컨트리 스키, 스노우보드, 스키 오리엔티어링, 피겨 스케이팅, 프리스타일, 아이스하키, 공하키 등 11개 종목에 출전하여 메달(종합) 76개를 따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급성호흡기질환 발병률 3월 말까지 저하

러시아소비감독청 사할린주관리국 정보에 따르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급성호흡기 질환이 확산되었으나 지난주에는 비교적 발병률이 19%로 낮아졌다. 3월 4-10일간 급성호흡기 질환 발병은 2209건이 기록되었는데 그중 1600건은 도심에 14세 미만 아이들 가운데 나타났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제 24 유치원의 한 그룹만 독감으로 감염 중에 있어 휴원을 했다. 급성호흡기 질환 상승률은 48.4% 넘었는데 수년간 통계조사에 따르면 3월 말까지는 발병률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호흡기질환은 바이러스로 감염되어 특화된 중증으로 이어지므로 의료관계자들은 간절기에 환자가 증가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겨울 동안 감소된 면역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고려신문

2019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9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79루블리 3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모스크바 국제관광박람회, 사할린주의 전시관 1등

사할린주의 관광잠재력 소개가 모스크바국제관광박람회에서 우승했다고 전해졌다. 지난 12일(화) <엑스포센터>에서 진행되는 박람회에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지사 권한 대행이 찾았다.

사할린주의 전시관에는 배모양으로 돼 있는 2층 설비로 벡터머리에는 지역 관광 정보 센터의 카운터가 있고 관광회사 대표들은 갑판을 따라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 작은 주방도 마련돼 있고 메가팔라스 호텔 주방장이 러시아, 한국, 일본의 전통 요리가 결합된 정통 사할린의 요리를 선보였다.

모스크바국제관광박람회에는 사할린주의 7개 여행사가 참여했다. 즉 <비-토모>, <아미스트>, <오메가 플러스>, <기드로스트로이 투르>, <메가-투르>, <소드루제스트워>, <드루지아-포호드니키>다. 주지사와 만났던 이 관광업체 대표들은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의 관광발전의 주요 방향을 논의했다.

"지역의 관광 매력은 교통 접근성에서 시작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항공기 운항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자주, 더 저렴한 가격으로 편안하게 항공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현재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수용객은 연간 120만 명이지만 2020년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는 1년에 최대 580만 명의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현대적 공항 건물이 준공될 예정입니다."라고 왈레리 리마렌코 대행이 언급했다.

올해부터 사할린주에서 거주지 등록과 상관없이 사할린-쿠릴 간 항공료를 단일가격으로 할 계획이다.

6월부터 주예산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하바롭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블라디보스토크 항공 노선 외에 블라고웨렌스크, 콤소몰스크-나 아무레, 소베트스카야가완,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스키까지의 항공 운항에 추가 보조금을 지출할 예정이다.

여름에는 사할린-모스크바 간 항공편 운항 수가 2배 증가될 예정이다.

주지사 대행에 따르면, 교통 접근성 개선은 항공편, 호텔 숙박 및 여행 서비스를 포함한 패키지로 판매할 때 사할린 관광업체들이 저렴한 항공료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라



본다. 겨울에는 이들은 스키 휴가 패키지, 여름에는 독특한 자연 명소 여행 패키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주정부는 뱃길 여객선 운항에도 관심이 많다. 코르사코브에서 크루즈가 접근할 수 있는 부두와 현대식 항구 건물을 건설할 계획이다.

자연명소 미화문제도 제기되었다. 2019년에 이 작업에 3억 루블리를 지원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사할린 주 고정자금 투자 0.3 % 감소

2018년에 경제 및 사회 분야 개발을 위한 사할린주의 모든 소유형태의 기관들에 투자 고정자금(2017년의 99.7%)으로 2,213억 루블리가 운용되었다.

고정자금의 투자율은 44%로 건물(주거 제외) 및 구조물에 대한 투자다. 모든 투자의 16.4%는 기본 재단들의 활성화를 위한 부분(기계류, 장비, 경리 도구 및 기타 물품 포함) 개발에 지급했다.

고정자금 투자의 출처는 조직의 자체 보유자금(69.8%)과 투자금 및 확보한 자금(30.2%)이었다. 확보된 자금은 주로 은행 대출(10.3%)과 예산 자금(9.9%)으로 형성되었다. 투자 대부분은 광업(74.3%)에, 전기와 운송 분야에는 4%씩, 건설에는 3.2%를 지급했다.

"도매 및 소매업 활동"에 대한 고정자금 투자 규모는 2017년에 비해 2.2배 증가했다. 문화, 스포츠 분야의 투자 규모는 2.2배, 정보 통신 분야는 2.1배, 가공업은 24.5%, 교육 분야는 21.7% 증가했다.

러시아 소유 형태의 조직들의 고정자금 투자 규모는 44.3%, 외국업체들은 52.8%였다. 러시아와 외국의 합작 형태의 지분은 2.9%에 불과하다고 사할린통계국 홍보실이 전했다.

사할린주 내 새로운 항공료 발표

사할린주에 4월 1일부터 사할린과 쿠릴열도 간 항공기 운항의 새로운 가격표가 적용될 예정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쿠릴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유즈노쿠릴스크 간 가격은 5950루블리, 유즈노사할린스크-오하는 6950루블리이다. 이투루프섬-쿠나쉬르 섬, 이투루프섬-쉬코탄섬 간 헬리콥터가 정상적으로 운항할 예정이다. 쿠릴스크-유즈노쿠릴스크 노선 항공기(헬리콥터) 이용료는 3100루블리, 쿠릴스크-크라보사위드스코에 노선은 2300루블리다.

사할린에서 철도 개건 작업 때문에 항공 운항이 다시 열릴 예정인 유즈노사할린스크-노글리키 간 이용료는 4950루블리, 유즈노사할린스크-샤호쵸르스크 간은 2000루블리이다.

(주정부 홍보실 자료에서)

이 모 저 모

사할린국립대, 한민족 민화(民話)를 소재로 교재 출판

사할린주한인협회의 지원으로 한국문화를 익히기 위한 학습교재를 사할린국립대 교수들이 개발해 출간했다. 저자로 나선 이 대학의 동양어문학, 동양학 및 역사학과 임 엘비라, 코르네와 인나, 최 인나, 조 카리나 교수들이 <문답으로 본 한국 문화>실습교재와 <한국 민화의 주제를 따라>색칠공책을 개발해 펴냈다. 학생들의 실습교재로 언어경시대회를 준비할 수도 있으며 내용의 구조는 매우 간단하고 명확하다. 본문은 일정한 주제와 주제에 따른 경시대회의 문제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문의 과제 말고도 실습교재에는 색칠그림 활동과 게임, 이야기의 인지활동을 위한 과제들도 포함되어 있다. 8과로 구성된 각과는 한국 생활의 또 다른 문화적인 면에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교재의 끝부분에는 독학생들을 위한 문제의 열쇠도 실려 있고 본문과 함께 <한국 민화를 소재로 한 색칠공책>에는 아름다운 색칠그림이 삽입되었다.

코르네와 인나 교수는 "우리는 학생들이 이야기를 몸소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그림들을 색칠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그 정서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교재에 제공된 민화는 한국의 전래동화연구소에 소개돼 있는 이야기들로 교재 번역은 서울에 있는 고려대학교 러시아어학과 학생팀이 번역했다. 대학 측은 사할린주 일반과학도서관과 사할린주국립대학 도서관에서 이 교재를 찾아볼 수 있다고 알렸다.

В СахГУ изданы учебные пособия по мотивам корейских сказок

Учебные пособия, посвященные культуре Кореи, изданы преподавателями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Авторами практикума "Культура Кореи в вопросах и ответах" и творческой тетради "По мотивам корейских народных сказок" выступил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Эльвира Лим, Инна Корнеева, Инна Че, Карина Де.

С помощью практикума школьники могут подготовиться к языковой олимпиаде. Структура очень проста

и понятна — текст на определенную тематику и олимпиадные занятия по теме. Кроме тестовых заданий, в пособии имеются задания на работу с иллюстрациями, узнавание игр и сказок. Каждый из восьми разделов книги охватывает тот или иной культурный аспект жизни в Корее. В конце практикума даны ключи к заданиям для самопроверки.

"Творческая тетрадь по мотивам корейских народных сказок", помимо текстов, содержит красивые иллюстрации-раскраски.

— Мы бы хотели, чтобы дети смогли разукрасить эти картины так, как они почувствуют саму сказку, — поясняет одна из составителей Инна Корнеева. — Нужно проникнуться историей и передать ее настроение.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в пособии сказки входят в золотой фонд этого жанра в Корее. Они переведены группой студентов отделе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рё (Сеул). С учебными пособиями мож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а также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СахГУ,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вуза.

사할린에 가장 오래된 1950년 출고 차량이 있다

교통경찰청은 사할린주 내에 등록된 차량 중 가장 오래된 차량이 있다고 발표했다. 사할린 지역에는 지금까지도 1950년에 생산된 가즈(고리콥스키 자동차 공장)-67이 등록돼 있다.

사할린주 내무부 교통경찰청 도로안전교통 홍보부는 작년에 사할린에 7726대의 새로운 자동차들을 등록했다고 전했다. 이는 2017년보다 2000대가 증가한 셈이다.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 사할린주에 차량 194,629대가 등록돼 있는데 승용차, 화물차, 버스들이다.

이 중 17만여 대 이상이 개인 차량이다. 연방, 사할린주, 지방이 소유한 차량은 1703대이고 모터사이클과 관련해서는 사할린에 2199대가 등록돼 있다."고 관할청이 덧붙였다. 교통경찰청 관계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시기에는 개인 차량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기록했다.

2017년에는 등록된 차량이 4000대로 증가했고 작년 말에는 예년과 같은 수치였다. 사할린주에 등록된 차량의 압도적인 대부분이 수입산 차량이란 점은 지적할 만하며 국내산 차량은 19%에 해당됐다.

Самый старый автомобиль на Сахалине 1950 года выпуска

ГИБДД озвучила марку самого старого автомобиля, заре-

гистрированного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к, в регионе до сих пор значится ГАЗ-67 1950 года выпуск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отделе пропаганды безопасности дорожного движения ГИБДД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островах поставили на учет 7 тысячи 726 новых автомобилей. Это больше, чем в 2017 году, почти на 2000.

- Всего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бласти,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31 декабря 2018 год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194 тысяч 629 машин. В этом числе легковой транспорт, грузовые автомобили и автобусы. Из них чуть больше 170 тысяч принадлежит физическим лицам. В федеральной, региональной и муниципаль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числятся 1 тысяча 703 машин. Что касается мототранспортных средств, то на островах значится 2 тысячи 199 единицы, - добавили в ведомстве.

Сотрудники ГИБДД зафиксировали резкое снижение количества лич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в период с 2014 по 2016 годы. Однако в 2017 году прирост составил почти 4000, поэтому показатель к концу прошлого года выровнялся.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подав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на островах машин являются импортными. Отечественный транспорт составляет лишь 19 процентов.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에게 사진과 책을 공유하기를 제안

유즈노사할린스크시청 홍보실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에게 앞으로 발표와 전시에 사용될 사할린에 대한 사진과 향토서적을 보존하도록 전달해주길 제안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모습과 사건들을 반영한 과거 사진과 엽서, 그리고 사할린주 도시들에 관한 문학서적과 안내서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행정국 고문서부에서 (레닌 거리, 69) 화, 목요일 9시부터 13시까지 접수하고 있다. 추가 정보는 전화 300-829 (내선 1-6)로 가능.

Южносахалинцам предлагают поделить фотографиями и книгами

Южносахалинцам предлагают передать на хранение фотоматериалы и краеведческую литературу о Сахалине, которые в дальнейшем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для выставок и публикаций,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Фотографии и открытки прошлых лет с видами и событиям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 также литература и справочники о город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нимаются в архивном отделе управления делам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ул. Ленина, 69) по вторникам и четвергам с 9.00 до 13.00.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по телефону: 300-829 (доб. 1-6).

(8면에 계속)

박순옥 사할린한인협회장 "추모관 때문에 사할린 한인사회 발칵"

한국인 현 모 씨가 추모관 세워 논란 야기...
"사할린 한인 이산의 아픔은 여전히"

“왜 남의 집 부모 위패를 허락 없이 만들어 와서 '무연고자 추모관'이란 간판을 걸어놓고는, 한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데려와서 향불을 피우도록 하는가는 겁니다? 도대체 저의가 뭐냐는 거지요?”

사할린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이 한인협회 사무실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사할린한인협회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있는 한인 문화회관 2층에 있었다.

이곳을 찾은 것은 2월21일이었다. 이날 저녁 유즈노사할린스크 악짜브리극장에서 열리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평화통일 페스티벌'을 앞두고, 사할린 한인사회의 얘기를 듣자고 박 회장을 찾았을 때였다.

"우리 어머니 위패도 세워놓은 것을 봤어요. 우리가 집에서 제사도 잘 모시는데, 왜 남의 위패를 만들어 놓고, 우리 대신 향불을 피우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할린이산가족협회 회장님은 거기에서 가족 5명의 위패를 확인했습니다."

문제의 추모관은 사할린에서 수산업과 건설업 등을 하는 한국인 현 모 씨가 유즈노사할린스크 인근 농장에 만든 것이다. 현씨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7,300명의 위패를 비치해놓고 '사할린 한인 추모관'이란 이름을 붙인 채 한국인 관광객들을 이끌어 들이면서 사할린 한인사회가 발칵 뒤집힌 것이다.

이 일에는 부산MBC도 한몫을 거들었다. 부산출신인 현씨의 소개로 작년 7월 사할린을 찾은 부산MBC는 현씨가 만든 추모관을 취재해 사할린 정용 무연고자 추모관이라고 소개했던 것이다.

"우리는 8월에 별초를 하고 성묘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부산MBC는 7월에 풀이 무성하게 자란 묘들을 찍어서는 무연고 묘라고 방영을 했어요."

이 때문에 사할린 한인사회와 현모씨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박 회장과 사할린이산가족협회 등이 "추모관을 없애고 사할린한인들한테 사죄하라"며 현씨를 고소한 것이다.

“처음에는 사할린 정용한인 무연고자 추모관이라고 했다가, 이름을 두 번이나 바뀌서 지금은 '사할린 한인 추모관'이라 내걸었어요. 이게 추모관 입구를 찍은 사진입니다. 대문 위에 '백두산 꽃사슴 자연농장'이란 간판을 가로로 크게 붙이고, 그 아래 같은 '사할린 한인 추모관'이라고 또 간판을 붙였잖아요."

박 회장은 "현씨가 우리를 얼마나 알아보았으면 이런 일을 벌이겠느냐"면서 사할린 한인사회가 이 때문에 크게 속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씨 추모관에는 정용과는 전혀 무관한 일본인들의 위패도 있고, 전후에 태어난 사람까지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2011년에 벌인 국외 강제동원 실태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위패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박 회장은 1966년생으로 올해 53세다. 그의 부친은 강제모집으로 1939년 사할린에 왔다. 그의 부친은 오랫동안 독신으로 지내다가 뒤늦게 결혼해, 박 회장이 태어났을 때는 부친이 52살 때였다고 한다.

"1975년 한국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사할린 한인들이 한국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니다. 사할린 한인 90%가 남한에 고향을 둔 사람들입니다. 냉전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향소식을 들을 수 없었지요. 그때의 편지도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습니다."

그의 부친도 편지를 받았다. 그리고는 고향이 그리워 울고불고 하다 6개월만에 타계했다고 한다. 박 회장이 열 살 때였다. 병명은 암이었다.

“사할린에는 1975년부터 77년 사이에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목을 빼고 기다리던 한국 가족 소식을 듣고는 아버지처럼 괴로워하다 돌아가신 거지요."

박 회장은 아버지가 임종하고 10년이 더 지난 뒤 어머니로부터 "부산에 '큰어머니'가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그가 스무살이 되던 해였다. 그리고 1930년생인 터울 많은 언니가 부산에 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부친이 16살 때 태어난 딸이었다.

"언니와 처음 만난 것은 1997년이었습니다. 언니가 사할린을 찾아왔습니다. 알아볼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공항을 빠져나올 때 바로 언니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모습 그대로였어요."

노보시비르스크대학 건축과 출신인 박 회장은 이 같은 개인적인 가족사를 바탕으로, 1997년부터 사할린이산가족협회 일을 돕기 시작한다. 그리고 6년간 이산가족협회 회장도 지낸 끝에 2016년 11월부터는 사할린한인협회장을 맡아,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사할린의 한인들은 광복이후에도 너무 오래 이산의 아픔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한국정부가 1세들의 고국 귀환은 허용했지만, 귀국한 1세들은 자녀, 손자 손녀들과 떨어져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싶어해요. 이처럼 다시 서로 새로운 이산의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행복할 수 있나요."

박순옥 사할린한인회장의 빼있는 항변이다. 그의 목소리는 사할린한인 문화회관을 벗어나서도 한참이나 귓전을 맴돌았다.



"역사의 아픔, 사진으로 생생하게 고발합니다"



절규하는 역사의 증인, 사진으로 표현하는 다큐멘터리 작가 김지연

사할린 동포, 북한 꽃제비, 일본 대지진 현장 찾아 살아있는 현장 앵글에 담다 김지연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는 동토의 땅 사할린에 강제징용된 동포들을 취재한 사진집 '사할린의 한인들'을 펴냈다.

일본 제국주의 망령... 여전히 진행형으로 아픔의 역사가 되고 있다

그들은 왜 지금도 반성하지 못하는가. '3.1 독립만세운동' 100년을 맞은 올해 독립운동가들의 활동과 우리민족이 겪은 아픈 기억들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일제의 조선침략으로 시작된 한민족 수난, 비극적 역사는 이제 끝난 것인가. 한민족 수난의 역사를 온몸으로 겪어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세중에 살고 있는 한 사진 작가가 그들의 고단했던 삶을

사진으로 조망하고 있다.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김지연씨다.

"쓰라린 과거의 기억들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랜 세월 속에 무감각해져 그저 지난 과거의 일로 잊어버리고 싶어하죠. 그 쓰라림은 지금도 진행형이죠."

민들레 씨앗처럼 흩어져 버린 한민족 해외동포들. 중국으로 연해주로, 러시아로, 사할린으로, 그들의 비극은 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또, 고통은 이제 끝이 났을까. 그들은 아직도 비극의 현장에서 동포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 이 비극의 현장을 찾아 누비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김지연 씨(49)를 지난 7일 오후 세종시청 카페에서 만나 우리나라 해외동포들에 대한 고난의 역사를 생생하게 전해 들었다.

여성으로 힘든 역사의 현장을 기록하려 들었느지를 맨 먼저 물어보았다.

"대학을 프랑스 리옹 근처 생테티엔에서 사진을 전공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프랑스 유학을 떠나 국내문제나 사회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큐멘터리 사진을 하게 된 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영화를 보고 난 후였습니다."

(7면에 계속)

동포청소년 1천여 명 모국 찾는다

재외동포재단, 7~8월 사상최대 인원 선발 전국 11곳서 모국체험 연수

올 여름 1천여 명의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대거 모국을 방문한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올 7월 9일부터 8월 6일까지 3차례에 걸쳐 전 세계 재외동포 중고생, 대학생들을 초청하여 모국연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고생: 1차 '19.7.17(수)~7.23(화)', 2차 '19.7.31(수)~8.6(화)' 서울 및 지방 11개 도시

대학생: 19.7.9(화)~7.16(화) 서울 및 지방 약 3개 도시

재외동포·중고생·대학생 모국연수는 동포 청소년이 모국의 사회·문화·역사를 체험함으로써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하고 글로벌 인

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올 해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임을 기념하여 전국 11개 지역(대전, 군산, 진안, 광주, 여수, 춘천, 영천, 대구, 제주, 전주, 고양)에서 역사의 현장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동포 청소년 선발인원은 전년 대비 4백여 명이 늘어난 1,030명 수준이다.

재단은 동포청소년들의 참가를 늘리기 위하여 항공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 동포 입양인과 입양인 자녀가 참가할 경우 항공료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그 동안 참가자가 적었던 재일동포도 참가자를 크게 늘릴 방침이다.

거주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재외동포 청소년으로 일정한 요건(중고생 : 만 14세~18세, 대학생 : 만 18세~24세)을 갖추면 참가가 가능하며, 동포 포털(www.korean.net)과 재외공관을 통해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은 "이스라엘이 매년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을 초청하는 것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앞으로 선발인원을 더 늘릴 계획인 만큼 동포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외동포재단)

원주시 문막읍새마을회,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사랑의 장 담그기 행사 가져

원주시 문막읍새마을회(회장 전근표, 부녀회장 홍광희)는 10일 문막읍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다문화가정 여성들과 사할린 동포들을 초대해 장 담그기 체험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새마을활력화사업의 일환으로 문막읍에 거주중인 다문화 가족 10여명과 사할린동포 20여명을 초대해 고추장 100kg, 막장 50kg을 담가 관내 소외계층에 전달했다.

특히 행사장에서는 다문화가정 주부들과 사할



린동포들을 대상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발효음식 문화를 소개하고, 전통 고추장 담그기 실습을 해 좋은 호응을 얻었다. 홍광희 새마을부녀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다문화 가정에 우리 전통 장담그기 문화를 전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두 배의 보람을 느꼈다."라고 전했다. (뉴스타운)

유즈노사할린스크=이종환 기자
(출처: 월드코리아, 2019.2.28)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 80-летию насильствен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на Сахалин

С июля по ноябрь 2018 г. в газете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публиковались материалы Чхве Генок,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доктора юридических наук. Темой ее исследования стали проблем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сокращенный вариант публикации профессора Чхве Генок.



Чхве Гёнок
профессор юридического факультета университета Ёнсан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зам.председателя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профессоров права. Основ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деятельности: исследование мультикультурализма. С 2012 года занимается изучением проблем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Большинство корейцев появились на Сахалине во время насильствен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с целью освоения недр острова для подготовки Японии к войне. Очень малая часть корейцев – потомки первых переселенцев, переехала из Приморья, а в конце 40-х годов появились рабочие из КНДР по договору о рабочем найме.

15 августа 1945 года Япония потерпела поражение в войне, и многие корейцы, завезенные на Сахалин, надеялись на возвращение в родную страну. Но в послевоенные годы многие корейцы, потеряв надежду на скорое возвращение в Корею, стали жить и работать на Сахалине.

Последние японцы покинули Сахалин 23 июля 1949 года. Корейцы надеялись, что позже им тоже дадут возможность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но только после подписания 19 октября 1956 года 'Совместной декларации между Японией и СССР' появилась надежда.

Основателем движения по репатр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читают представителя 1-го поколения островных корейцев Пак Но Хака. Началось с того, что однажды он понял, что единственной легальной возможностью выехать в Корею является заключение брака с гражданкой Японии. Пак женился на японке, после этого подал прошение и в декабре 1957 года получил разрешение на выезд, как и 50 други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день проводов 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просили: "Сделайте все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мы тоже могли уехать домой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Пак Но Хак решил подать петицию на имя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уже по пути в Японию, на судне стал собирать подписи попутчиков в поддержку ходатайства.

По прибытии в Токио Пак Но Хак создаёт движение п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ю петиции с требованиям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 правительству и парламенту Японии, Красному Кресту и другим инстанциям и организациям повернуться лицом к проблемам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феврале 1959 года он с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ами учредил Союз по репатриации интернированны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й в последствии переименовали в 'Ассоциацию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Японии'. Ассоциация занималась движением за репатриацию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июне 1965 года между Япон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После саммит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Д Японии заявил, чт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отказалась от претензии к Японии, в том числе и в вопросе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После этого япон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тказалось решать проблему.

Несмотря на трудности, общественное движение за возвращени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Родину привлекло внимание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и впоследствии стало мощным толчком в решении вопроса о репатриации

Ещё раз к вопросу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частности, собранные им около 7000 писем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дресованных родственникам в РК, оказались весьма весомым аргументом.

Кого считать гражданин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статье 13 Всеобщей декларации прав человека (утверждена 10 декабря 1948 г.) записано: '1. Каждый человек имеет право свободно передвигаться и выбирать себе местожительство в пределах кажд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2. Каждый человек имеет право покидать любую страну, включая свою собственную, и возвращаться в свою страну'. В статье 15 указано: «1. Каждый человек имеет право на гражданство. 2. Никто не может быть произвольно лишен своего гражданства или права переменить свое гражданство».

В июле 1989 года между РК и Японией было заключено соглашение о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е по оказанию помощи проживающим на Сахалине корейцам. Необходимые затраты на эту работу взяло на себ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Японии 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началась работа по репатриации. Надо заметить, что япон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е несло никакой официаль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оно через Красный Крест всего лишь оказывало гуманитарную помощь. А Красный Крест РК с 3 января 1990 года начал работу по репатриации: Сначала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ознакомительная поездка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затем с 1992 года по существу началась плановая репатриация.

Кандидатами на репатриацию могут стать:

Роденные и попавшие на Сахалин до 15 августа 1945 года, дети-инвалиды.

Имеющие россий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или лица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Пожилые бездетные, близкие родственники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Не имеющие психических и инфекцион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Двое пожилых женщин из разных мест проживания.

Первый пункт вновь создает проблему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между близкими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Например, рожденный до 15 августа 1945 года может стать кандидатом на репатриацию, а его брат, рожденный позже, таковым уже не является, и тогда образуется разделенная семья. Такие требования должны быть смягчены, и нужно добиться репатриации хотя бы для сахалинцев 1 и 2 поколений.

Согласно второму пункту, имеющие гражданство КНДР или Японии исключены из рассмотрения. В то же время гражданство КНДР нельзя считать добровольным, ведь многие приняли гражданство в надежде на скорейшее возвращение на Родину, либо для учебы в КНДР, либо в случае депортации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Второй пункт совершенно не учитывает указанные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Третье условие относится к неработоспособным пожилым людям, или одиноким пожилым без детей.

Четвертое условие является антигуманным. Это всё равно что бросать ребенка из-за его болезни.

По пятому условию требования двое пожилых должны проживать в одной квартире, и в газете было немало объявлений по поиску пожилых напарников. Абсолютно бесчеловечное требование. Нельзя добиться независимой и свободной жизни, проживая в одной квартире с незнакомым человеком. Нужно гарантировать минимальные условия человеческой жизни. Несмотря на эти жестокие требования, люди приняли их только потому, что хотят во что бы ни стало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И сейчас необходимо изменить этот пункт по условиям проживания одиноких.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репатриированные корейцы, согласно Закону о гарантиях базового уровня жизни, причислены к особой групп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ждивенцев, им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особое денежное пособие и медицинское страхование. Большинство репатрииро-

ванных старше 65 лет сохранили двойное гражданство.

До сих пор на Сахалине по корейскому обряду справляют поминки, готовят праздничную еду, устраивают первую встречу родителей жениха и невесты еще до свадьбы, придерживаются многих других обычаев и обрядов. Несмотря на отличные от Кореи условия проживания, на Сахалине некоторые корейские традиции соблюдаются более строго, чем в самой Кореи. Может быть, это и есть культурный код в душе корейцев?

Время пребывания репатриированных корейцев за рубежом РК ограничено 3 месяцами (90 дней), и при нарушении этого ограничения приостанавливается выдача денежного пособия.

Иждивенц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нельзя заниматься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Поэтому у них отсутствует комфортная среда, где можно проявить свои способности. В-третьих, проживание в одном месте на самом деле помогает поддерживать друг друга в разных жизненных ситуациях, но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образуется островок, где ограничено общение с коренными гражданами. Поэтому им нужно д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использовать и другие способы проживания и общения с внешней средой.

Под сахалин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мы подразумеваем как проживающих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а Сахалине корейцев, так и тех, кто переехал на ПМЖ в Южную Корею. На конец декабря 2014 года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живали около 27 тысяч корейцев и среди них около 70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На момент окончания войн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было около 43 тысяч человек.

С 1997 года по декабрь 2017 года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в Корею переехали 4393 человека, из них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осталось 2825 человек, которые проживают в 25 регионах Кореи.

Автору не удалось найти статистических данных о возрасте, профессии и образовании проживающих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а Сахалине корейцев. В целом они ведут активный образ жизни, занимают достойное положение в обществе, их потомки живут в Москве,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в Казахстане, Узбекистане.

Молодое поколение, живущее в российском социуме, не ощущает потребности в знании родного языка, постепенно уменьшается число людей со знанием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Хотя с расширением культурных и гуманитарных обменов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ореей интерес к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возрастает. На Сахалине издается газета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Сэ корё синмун», ведется телепередача «Уримал бансон», организованы визиты корейских студентов на остров 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посещение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ы сахалин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В феврале 2017 года в парламент был внесен проект закона по оказанию помощи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но до сих пор этот проект не прошел процедуру рассмотрения. Для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с 23 марта 2013 года введен в действие «Особый закон по оказанию помощи корёинам (корё сарам) для получения права на пребывание и проживание», хотя в нем еще остаётся много нерешенных вопросов.

Мы находимся на переломном историческом этапе, когда корейская нация может проявить свою решимость и веру в собственные силы. Ключевым моментом этого перелома является знаменитое рукопожатие глав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а горе Пэктусан. Главы двух стран не должны забывать о сокровенном желании 80 млн. людей корейской нации и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Меня не покидает надежда, что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в будущем смогут свободно жить и работать на своей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е.

Перевод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Ин Му Хак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19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82 руб. 1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ООН: Находясь под санкциями, КНДР сохраняет свою ядерную программу

Находясь под санкциями, КНДР сохраняет свою ядерную программу. Более того, она предпринимала попытку приобрести оборудование по обогащению урана. Об этом 10 марта сообщило издание Wall Street Journal, ссылаясь на доклад комитета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по санкциям в отношении СК. В нём говорится, что КНДР незаконно перевозит грузы, перегружая их в открытом море, что значительно снижает эффективность санкций. Эксперты комитета также отмечают, чт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власти перераспределили ракетные установки по разным районам страны в целях подготовки к вероятным военным действиям со стороны США. Указывается, что для получения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Пхеньян использует хакерские атаки. К примеру,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хакеры совершили атаку на банки Индии и Чили, выведя десятки м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Есть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м, что КНДР увеличила объём незаконного импорта нефтепродуктов и экспорта угля. Между тем, вновь затронута проблема прав человека в КНДР. Специальный докладчик ООН по этому вопросу Томас Охеа Кинтана выразил обеспокоенность в связи с тем, что в КНДР нарушаются права заключённых, продолжается практика применения пыток. Он подчеркнул необходимость решения данной проблемы путём диалога с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руководством.

На ядерных и ракетных объектах КНДР зафиксирована активность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оенные зафиксировали активность на различных ядерных объектах Севера, помимо ядерного комплекса Ёнбён.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е источники. Речь идёт о так называемых объектах Plus Alpha, на которых, по данным военных, ведётся работа по обогащению урана. Источники отмечают, что специализация объектов Plus Alpha охватывает весь спектр оружия массового уничтожения. Ранее военные сообщали о том, что за главными ядерными объектами КНДР ведётся тщательное наблюдение. Однако о признаках активности на ракетных и ядерных объектах, помимо комплекса Ёнбён, говорится впервые. Однако, пока сложно делать определённые выводы о том, готовится ли Север к реальному ракетному запуску. Нынешняя ситуация является показателем возможности эскалации напряжён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любой момент в случае, если КНДР и США не смогут договориться.

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ыставке цветов в Кояне примут участие 355 компаний

В крупнейшей в стране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ыставке цветов, которая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с 26 апреля по 12 мая в городе Кояне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примут участие 355 компаний из 30 стран мира, а также 15 иностранных профильных госучреждений. Азиатский союз организаторов цветочных выставок, в который входят Тайвань, Сингапур, Индонезия и другие, намерен провести конференцию в рамках выставки в Кояне. Завершено формирование ста команд из числа жителей Кояна, которые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и «Garden Show». Сама выставка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Озёрном парке района Ильсан города Кояна и в районе Цветочной отрасли Вондан.

Юг и Север укрепляю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сфере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Корей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по охране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сообщило о создании временной структуры «Организация по межкорейским обменам в сфере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а также консультационного органа «Межкорейский форум по политике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Временная структура займётся обсуждением и продвижением совместных проектов,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исследование историче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в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ой зоне, подготовка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й базы для активизации двустороннего обмена и другие. В работе «Межкорейского форума по политике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около 50 экспертов. Они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 обсуждения по таким темам как политика активизации обмена, сравнительный анализ систем охраны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Юга и Севера, возможности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охранении историче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в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ой зоне и другие. (RKI)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 появился "собачий городок"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пришлось создать специальный "собачий городок", где проживают любимцы президента РК Мун Чжэ Ина. Как выяснилось, у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сейчас уже одна кошка и целых десять собак, восемь из которых напрямую связаны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На официальной страниц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в Instagram прошла забавная видеозапись по "собачьему городку", который сравнительно недавно появился в структуре "Голубого дома" (неофициальное названи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 прим. "РГ"). Мун Чжэ Ин широко известен за свою любовь к домашним животным, но мало кто знал, что у него сейчас насчитывается "на воспитании" целых десять псов и одна кошка.

Если пересчитывать всех, то еще с "до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ремен" у Муна была кошка по кличке Ччинччини и собака Мару. Однако в ходе президентской кампании в 2017 году Мун публично пообещал, что в случае своей победы на выборах возъ-

мет из приюта для домашних животных еще одну собаку. 9 мая 2017 года Мун был избран президентом РК и сдержал свое слово. Из одного из приютов он забрал "самую некрасивую дворняжку" - четырехлетнего пса Тори, который был спасен в 2015 году из разрушенного дома в городе Намъянчжу. В итоге Мун, его супруга и трое домашних животных переехал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ю президента.

Серьезное пополнение этого "домашнего зоопарка" произошло недавно - в сент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когда Мун с официальным визитом посетил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Лидер КНДР Ким Чен Ын, узнав о любви Муна к животным, подарил ему пару собак известной корейской породы "пхунсангэ". Одну зовут Коми, а другую - Сонган.

И недавно у этой пары родилось сразу шесть щенков, которых назвали символично. В переводе с корейского имена щенков означают "гора", "поле", "река", "звезда", "луна" и "море". Все щенки такого же окраса, как и родители - белого цвета.

В результате у президента РК Мун Чжэ Ина сейчас в общей слож-

ности десять собак и одна кошка. Из-за нехватки места в самом жилом комплексе дл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гостей" на территори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соорудили отдельный "собачий городок". В нем в самом начале стоят две просторные деревянные будки - для родителей - Коми и Сонган, а немного в глубине, под навесом разместились будки для щенков. Над каждой будкой есть надпись с именем "хозяина жилища". Кроме того, у щенков на ошейниках есть бирки с именами, иначе их трудно различать - слишком они похожи.

Н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ном в Instagram видео показано, как Мун Чжэ Ин в сопровождении главы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Но Ён Мина и пресс-секретаря Ким Ы Гёма посещает своих любимцев и кормит их. Судя по ролику, щенкам очень нравятся ботинки Муна, которые они пытаются грызть.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пояснили, что теперь для щенков они наймут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кинолога, который займется их дрессировкой.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Смог в Корее приравняли к общественному бедствию

Парламент Южной Кореи принял ряд поправок к законам, которые направлены на решение проблемы загрязнения атмосферы. Отныне на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м уровне смог приравнен к "общественным бедствиям", а в школах и детских садах должны будут установлены очистители воздуха. В стране же будет создан специальный комитет, который займется решением проблемы смога. Возглавить его предложили экс-генсеку ООН Пан Ги Муну.

Проблема грязного воздуха и смога вот уж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подряд существенно портит жизнь в Южной Кореи и негативно сказывается на здоровье людей. Эта тема стала одной из острых и обсуждаемых среди местного населения, которое требует от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депутатов принять радикальные меры. Похоже, что власти отреагировали на это. Сегодня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парлам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одобрил целую серию поправок к законам. Согласно одной из них, отныне смог приравнен к "общественным бедствиям", войдя в один разряд с крупными лесными пожарами, масштабными загрязнениями воды, авариями с многочисленными жертвами и прочими инцидентами. Это позволяет теперь широко использоват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бюджет для решения данной проблемы, принимать экстренные меры общенационального характера и прочие шаги с целью сокращения ущерба, устранения последствий и выплаты компенсаций.

Кроме того, в помещениях детских садов и школ теперь в обязательном порядке будут установлены очистители воздуха и датчики, определяющие содержание вредных примесей в атмосфере. Расходы по установке и обслуживанию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возложены на центральные и местные органы власти. Одновременно разрешена продажа для обычных граждан автомобилей, которые работают на природном газе. До сих пор в Кореи подобные автомобили могли закупать лишь люди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компании такси, а также фирмы по прокату автомобилей. Газ обходится дешевле, чем дизельное топливо или бензин, а также существенно меньше загрязняет атмосферу.

Вчера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принял предложение лидера оппозиционной Партии правого будущего Сон Хак Кю и одобрил создание единого комитета, который займется выработкой комплексных мер по борьбе со смогом. Возглавить новую структуру предложено бывшему Генеральному секретарю ООН Пан Ги Муну. По словам близких к Муну людей, экс-генсек проявил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 к проблематике борьбы со смогом и, скорее всего, примет предло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вое официальное заявление Пан Ги Мун, как ожидается, озвучит 15 марта, когда вернется в Корею из Франци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14.03.2019)

Южная Корея может отказаться от закупок Boeing 737 Max

Вторая катастрофа за пять месяцев с авиалайнером Boeing 737 Max спровоцировала сомнения во всем мире по поводу надежности этого самолета. Южная Корея приостановила полеты этих самолетов у себя, а также заявила, что может пересмотреть планы крупномасштабных закупок Boeing 737 Max.

Корейцы достаточно быстро отреагировали на трагедию с крушением в Эфиопии Boeing 737 Max. Два дня назад было заявлено, что в стране приостановлены полеты данного типа самолетов до полного прояснения причин крушения и получения гарантий надежности этого типа машин. Правда, это не сильно сказалось на общей ситуации с авиаперевозками Кореи. На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в стране есть только два Boeing 737 Max,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в парке компании-лоукостера Eastar Jet. Они летали на рейсах из Кореи в Японию и Таиланд, но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заменены на другие машины до прояснения ситуации.

Однако, как выяснилось, южнокорейские авиакомпании имели большие планы в отношении этого типа самолета, которые теперь, возможно, придется пересмотреть. Как сообщил депутат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арламента Хон Чхор Хо, до 2027 года четыр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авиакомпании планировали закупить 114 лайнеров Boeing 737 Max 8. Среди перевозчиков, которые намерены были сделать ставку на этот самолет - крупнейшая авиакомпания страны Korean Air, а также три лоукостера - Eastar Jet, Jeju Air и T'way Airlines. При этом Jeju Air хотела закупить сразу 56 лайнеров Boeing 737 Max 8, тогда как Korean Air - 30, Eastar Jet - 18 и T'way Airlines - 10 машин.

В Korean Air уже в мае должны были прибыть восемь лайнеров Boeing 737 Max, но авиакомпания заявила, что не поставит их на рейсы, пока не будет полной уверенности в безопасности данного типа машины.

На условиях анонимности сотрудники этой и других авиакомпаний, которые собирались купить Boeing 737 Max 8, сказали, что планы по массовым закупкам этих самолетов могут быть пересмотрены. "Все зависит от заключения экспертов. Если выяснится, что у Boeing 737 Max есть проблемы или у нас будут какие-то хотя бы малейшие сомнения в данном виде лайнера, то это неизбежно заставит нас изменить наши планы закупок. Мы не хотим терять клиентов, которые сейчас действительно обеспокоены ситуацией", - сказ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одной из авиакомпаний. Впрочем, он призвал не делать пока скоропалительных выводов, подчеркнув, что в Кореи будет проведена и собственная оценка безопасности Boeing 737 Max 8.

Напомним, что катастрофа в Эфиопии привела к тому, что в нескольких десятках стран мира приостановили эксплуатацию лайнеров Boeing 737 Max.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отметить пятую годовщину присоединения Крыма к Росси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 этой дате приурочено проведение ряда культур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и спортив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16 марта центром праздника станет парк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имени Ю.А. Гагарина.

В 12:00 утр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артодрома начнется праздничный концерт. На сцену выйдут вокальный ансамбль «Экспромт», образцовый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ий ансамбль «Сказка», эстрадный театр-студия «Модуляция», танцевальная студия «Electro dance» и другие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которые исполнят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и гостей области патриотические песни и продемонстрируют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ое мастерство.

Пройдет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и череда спортив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риуроченных к праздничной дате. В зале школы олимпийского резерва на улице Горького состоится чемпионат по тхэквондо, а в спортзале на улице Полевой - третий тур региональ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 настольному теннису «Командный чемпиона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рт спортивных состязаний – в 11:00.

К празднованию пятой годовщины «Крымской весны» присоединятся муниципалитеты. Так, в 11:00 утра 16 марта в корсаковском доме культуры «Океан» стартует первенство и чемпиона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прыжкам на батуте и акробатической дорожке. Кроме того, во всех средних школах региона в этот день пройдет Конкурс рисунков для младших школьников «Крым и Россия - едины», который продлится два дня.

Кроме того, в понедельник 18 марта в школах и учреждениях средн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стоится единый классный час «Россия и Крым. Мы вместе!».

Напомним, Крым и Севастополь вошли в соста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итогам проведенного 16 марта 2014 года референдума. Воссоединение с Россией поддержало подав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жителей полуострова. 18 марта 2014 года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руководство Крыма и мэр города Севастополя подписали договор о вхождении Республики Крым и города Севастополя в состав России.

На Сахалине откроется межрег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компетенций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конце марта этого года на базе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хникума сервиса начнет действовать новая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площадка.

В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м центре будет вестис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ая подготовка по направлению «Сервис и гостеприимство». Ежедневно в современных учебно-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мастерских 50 студентов смогут осваивать высокие стандарты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движения WorldSkills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 Это важный шаг в работе по повышению престижа рабочих профессий и подготовке кадров по наиболее востребованным и перспективным специальностям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Появление такой площадки позволит обеспечить остров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ми кадрами, что в целом поднимет уровень сервиса и повысит туристическую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 региона.

Как рассказал директор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хникума сервиса Денис Раздобреев, обучаться в центре смогут студенты не только из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но и из других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ов.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ая база техникум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едставлена самым передов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для подготовки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таким компетенциям, как выпечка хлебобулочных изделий, поварское и кондитерское дело, парикмахерское искусство, ресторанный сервис, технология моды, флористика, графический дизайн, администрирование отеля.

– Ранее работодателям нередко приходилось отправлять своих сотрудников в другие регионы для получения новых компетенций или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Благодаря реше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о создании центра опережающе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подготовки этот вопрос можно будет решать на месте, – отмети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Наумов. – Достаточно обратиться в центр, и там сконструируют 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проведут обучени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современными требованиями и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оборудовани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мировым стандартам.

Уже до конца этого года на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лощадке подготовят 60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рабочих. А начиная с 2020-го центр начнет ежегодно выпускать по 300 специалистов.

Широки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предоставляет также кадровый конкурс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торый стартовал 18 феврал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обедители будут включены в кадровый резер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получат реальный шанс занять руководящие должности в област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администрация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бизнес-корпорациях.

Сахалинским семьям с детьми компенсируют затраты на детские сады и «продленку»

Гла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о расширении мер поддержки молодых семей с детьми. Одной из них станет выплата компенсаций родителям, чьи дети посещают частные детские сады, а также группы прсммотра и ухода у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около 14 процентов маленьких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 возрасте до 3 лет не обеспечены

услугами дошко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 На сто процентов закрыть потребности мы должны до конца 2021 года. Для этого предусмотрен целый комплекс мер, одной из которых является компенсация расходов на частное дошко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Уверен, что такая форма поддержки позволит еще и сохранить позитивную тенденцию роста рождаемости в регионе,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 словам министра образования области Натальи Мурашовой, выплата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яться ежемесячно в размере 50 процентов от родительской оплаты, но не более 10 тысяч рублей.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в 2019 году компенсацией воспользуются около 270 сахалинских семей, а к 2021 году – более 450.

Также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региона вводится новая мера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по компенсации родителям части оплаты за пребывание детей в школьных группах продленного дня. Этот проблемный вопрос был поднят еще в 2017 году на форум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юза женщин России».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 сахалинским семьям будет компенсироваться 30 процентов затрат на «продленку». Ожидается, что в 2019 году такой мерой поддержки воспользуются почти 1 тысяча родителей.

На борьбу с онкологие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ополнительно выделено 165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По поручению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редства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пойдут на закупку современных и эффективных лекарств, которые только выйдут на мировой рынок. Новейшие разработки фармакологической индустрии уже доступны пациентам сахалинского онкологического диспансера.

Стоимость недельного курса таких химиотерапевтических препаратов с сопроводительной терапией достигает полу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но для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они бесплатны. Такой практики больше нет ни в одном регионе России. Важное условие - лечение подбирается индивидуально, строго по медицинским показаниям, с прицелом на определенные виды опухолей. Современные препараты положительно влияют на кровотворную систему организма, помогают больным справиться с токсическими проявлениями химиотерапии, в целом улучшают их состояние в процессе лечения. При этом значительно увеличивается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жизни пациентов.

- Борьба с онколог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сегодня – одно из магистраль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сахалинск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еред сферой медицины поставлена задача - снизить смертность в регионе от злокачественных новообразований и повысить их выявляемость на самых ранних стадиях, - подчеркнул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Всего в этом году на лечение онкозаболевани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линии фонда обязатель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выделен 1 миллиард рублей.

Сегодня онкологи Сахалина - единственные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спользующие рентгенэндоваскулярные методы для точечного воздействия на опухоль. Главной особенностью таких методов является то, что все вмешательства производятся без разрезов.

Еще одна задача, которую успешно решают в области – обеспеченность медучреждени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и кадрами. По словам заведующей гинекологическим отделением областного онкодиспансера Марии Даниловой, благодаря принятым мерам,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штат укомплектован полностью.

- Буквально 3 года назад у нас были большие проблемы с кадрами, и вся нагрузка ложилась на одного врача, было тяжело.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отделение не нуждается в кадрах, - рассказала она.

За 2,5 года в онкодиспансер пришли работать 37 врачей, еще два – в этом году. При этом акцент сделан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подготовки специалистов – врачи привлекаются из ведущих центров страны.

Сахалин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судило перспективы расширен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Эксон Нефтегаз Лимитед», оператором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1»

О совмес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сфере дальнейшей разработки нефтегазовых ресурсов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1» и реализации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договорились гла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президент нефтегазовой компании Шелли Бир.

В этом году оператор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1» расширяет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и увеличивает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й бюджет более чем на 75 проценто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18 годом. Свыше 2,1 миллиона долларов будет направлено на развитие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медицинской, спортивной сфер в регионе, а также на сохранение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ы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 За годы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1» его участники внесли значимый вклад в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ефтегазового комплекса, экономики и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региона. Мы ценим, что консорциум принимает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реализации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Думаю, объединение наших усилий в вопросах подготовки специалистов в регионе будет особенно полезно.

Шелли Бир отметила, что компания планирует расширить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техническим нефтегазовым институтом СахГУ с привлечением ведущих вузов страны. Также «Эксон Нефтегаз Лимитед» продолжит оказывать поддержку одаренных сахалин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в рамках различ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ектов, таких как «Эврика – путь к ус-

пеху». Есть планы по усилению робототехническ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зучению технического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Для медицинской отрасли консорциум «Сахалин-1» вновь выделяет средства с целью приобретения медицинск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и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врачей.

– В этом году у нас будет больше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поддержки соци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Каждое направление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сти мы намерены обсуждать с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области, чтобы жител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получали ту помощь, которая им,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ужна. Уверена, что наше партнерство будет эффективным и успешным, – добавила президент нефтегазовой компании.

Также на встрече с главой региона Шелли Бир, которая возглавила «Эксон Нефтегаз Лимитед» в марте этого года, рассказала о ходе работ по проекту «Сахалин-1». Сегодня добыча углеводородов ведется на трех месторождениях: Чайво, Одопту, Аркутун-Даги. Ежегодные объемы - 11,5 миллионов тонн. Показатели по добыче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выросли и сегодня превышают изначальные проектные мощности на 20 процентов, что позволяет увеличивать налоговые поступления в бюдже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нсорциуму принадлежат 9 из 10 самых протяженных скважин в мире, пробуренных с применением технологии БОВ – большого отхода от вертикал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таких скважин позволяет свести к минимуму воздействие на окружающую среду и устранить необходимость в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морских сооружениях.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заинтересовался деталями этой передовой технологии. В ответ Шелли Бир пригласила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посетить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объекты компании и увидеть уникальные буровые установки «Эксон Нефтегаз».

Сразу две долж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ыносятся на кадровый конкурс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роме того, победители смогут претендовать на должности четырех министров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двух их заместителей, четырех руководителей агентств и пяти заместителей глав администраций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была озвучена на рабочем совещании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 Мы организовали этот конкурс, чтобы усилить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людьми, которые живут и работают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хотят и знают, как изменить жизнь к лучшему. Главные призы - должность в органах власти, включение в кадровый резерв, возможности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и идеи, свой потенциал для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 Поэтому очень важно, чтобы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островитян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 словам исполняющего обязан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ергея Наумова, для глав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конкурс - хорошая возможность сформироват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ую команду или обучить специалистов, работающих в мест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ях и бюджет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Напомним, кадровый конкурс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ртовал 18 феврал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главы регион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и проводит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НО «Россия – страна возможностей». Регистрация участников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течение месяца.

Стать частью «Команд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огут специалисты с высшим образованием и старшекурсники вузов в возрасте от 20 до 45 лет. К участию приглашаются жители региона, занятые в различных сферах: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образование, туризм, культура, цифр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производство, ЖКХ и ряде других.

На дистанционном этапе конкурса, который продлится до 18 апреля, участникам предстоит заполнить анкету, пройти тестирование и написать эссе.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молодые управленцы должны представить свои социальные проекты. Участники, наиболее успешно справившиеся с заданиями, будут приглашены на очный этап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Здесь им предстоит защита проектов, контрольное тестирование. Желающим стать частью «Команды» нужно будет справиться с заданиями, моделирующими управленче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проявить лидерские качества.

В качестве приза все участники получают электронные книги, а также право стать слушателями курса вебинаров по саморазвитию. На одном из таких занятий гла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елится своим опытом управлен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мпанией.

Наградой для победителей кроме того, что они будут включены в кадровый резер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получат возможность занять руководящие должност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области, администрация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бизнес-корпорациях, станут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гранты – 1 миллион рублей на обучение по программам развития управленческих навыков в ведущих российских вузах. Авторы лучших волонтерских, молодежных проектов и проектов социально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также получают гранты на их реализацию.

Оценивать участников кадрового проекта будут эксперты федерального конкурса «Лидеры России». Объективность оценки также будет обеспечивать наблюдательный совет конкурса. В него вошли известные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ауки, искусства, бизнеса,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Основные задачи наблюдательного совета – проследить за тем, чтобы конкурс проходил честно, и чтобы у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были рав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역사의 아픔, 사진으로 생생하게 고발합니다"

(3면의 계속)

아픔의 역사는 쉽게 공명(共鳴)을 일으키는 모양이다. 서울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프랑스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 사실 국내역사나 사회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귀국 후 변영주 감독이 만든 위안부 할머니를 다룬 영화 '낮은 목소리'를 본 후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1998년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을 찾아가 할머니들과 같이 잠을 자며 설거지, 청소를 해주면서 할머니들과 친해졌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다큐멘터리 사진작가가 되다

"처음에는 사진 찍을 생각은 못했어요. 그저 할머니들이 보고 싶었고 약간이라도 위로가 되어주면 하는 생각에 찾아갔죠. 그런데 처음 친해진 '밥두리 할머니'가 너는 누구인데 왜 자꾸 여기에 오느냐고 물었어요. 사진작가라고 했더니 그럼 사진 좀 찍어 보라고 해서 할머니들 사진을 찍어 주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됐어요."

시대에 희생이 된 위안부 할머니들을 앵글 속에 담으면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과 기억을 함께 했고 이게 동기가 돼 역사의 현장을 누비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라는 새로운 직업을 가졌다.



김지연 작가는 위안부 할머니를 통해 아픔의 역사와 시대정신을 그려내려고 노력했다. 사진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순덕 할머니가 생전에 그림을 그리는 모습, 김지연작가 제공

"그때 김순덕 할머니 사진을 남겼는데 할머니들은 살아있는 역사의 영혼으로 사진 속에 남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깊은 감동을 받은 것은 교황님이 할머니들을 미사에 초대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전쟁위안부로 참을 수 없는 아픔을 겪은 할머니들이 그래도 품위를 잃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한 마디가 할머니들에게 얼마나 큰 안식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지도자들은 어떠한가요."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눈물을 감추기 어려운 살아있는 다큐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첫 만남을 가졌던 1998년. 그는 북한에서 중국을 넘나드는 '꽃제비'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다큐사진 촬영 차 중국 연변 땅으로 향했다. 처음에 만난 아이들은 카메라를 두려워했다.

"그 아이들은 그저 살기 위해 북한과 중국땅을 왕래했어요. 얼굴이 알려지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사진을 찍을 수 없었어요. 나중에는 함께 먹고 놀면서 얼굴을 가리고 다큐사진을 찍었어요. 그들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었고 그저 살기 위해 구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다큐멘터리 작가 김지연은 분단과 기아현장에서 아이들은 '민들레 홀씨', '통일제비'라는 생각으로 2000년 '연변으로 간 아이들'이란 제목으로 사진집을 발표했다.

점차 김씨의 관심은 중국동포와 러시아 동포까지 확대됐다.

망한 나라 조선에서 땅을 빼앗기고 울분으로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잡초 같은 생을 살아낸 사람들, 그들을 알

면 알수록 더욱 깊이 빠져 들었다. 그들의 쓰라린 가슴, 격동하는 역사의 현장을 사진으로 남겨한다는 사명감으로 한 컷 한 컷 카메라에 담았다. 이러한 비극의 역사현장들을 모아서 김씨는 2001년에는 '노동자에게 국경은 없다', 2005년 '러시아의 한인들'이란 제목의 사진집을 발표했다.

88올림픽 때 방한하여 비로소 자기 조국을 알게 된 구소련의 유명가수 신갈리나와의 인연을 소개했다. 그는 '돌아와요 부산항에'라는 노래를 불렀다가 KGB의 조사를 받고, 후에야 그 노래가 한국인의 이별의 애환을 담은 노래라는 걸 알았다.

동일본대지진, 방사능 오염지역 '조선학교'에 가다

2011년 3월 일본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의 한인학교 방사능 측정기, 일본 대지진도 김지연작가의 취재권역에 들어왔다. <사진 = 김지연작가 제공>

김작가의 관심은 계속해서 일본동포 사회로 이어졌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고 그 복구과정에서 재일동포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차별대우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재일동포들은 상당수가 지금도 무국적 상태인 '조선적'으로 있어요."

조선적(朝鮮籍)은 중국동포인 조선족과도 다르게 조선에 호적이 있다는 뜻이다. 재일동포들은 일본귀화를 거부하고 1910년 한일합방으로 망한 조선의 호적을 유지하고 있어 일본도 아니고, 북한도, 한국도 국적이 없는 무국적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이 일본인 교육을 거부하고 만든 학교가 바로 조선학교입니다. 다른 외국인 학교는 다 인정하면서 조선학교는 아직도 일본이 학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방사능으로 오염된 후쿠시마를 방문하여 이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의 고난을 다큐사진으로 남겼다. 또한 조선학교 졸업식에도 초대를 받아, 그 기록물을 '일본의 조선학교'라는 사진집으로 출판했다. 조선학교는 남북의 이데오르기 틈바구니 속에서 어느 쪽에도 가까이 하려하지 않는다. 재학생11명의 조선학교 졸업식에 김씨가 초청받은 일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다.

동토의 땅 사할린, 한민족의 '디아스포라'

그가 하고 싶은 일은 2020년 '사할린 동포 사진전'이다. 2010년 이미 인사동에서 개인 사진전을 개최한 그는 10년 만에 '사할린 주립미술관'에서 사할린 해외동포들의 애환을 담은 역사의 현장을 다큐멘터리 사진전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사할린 한인동포들은 아직도 일제 강점기 억압 그대로 살고 있어요. 1945년 한반도가 해방되었지만 일본 패망으로 사할린은 소련땅이 됐고 한국인들은 아직도 송환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해방이 없어요. 일본은 패망하고 일본인 유골까지 송환해 갔지만 한국인들은 자국민이 아니라고 사할린에 방치했어요. 노동력이 필요할 때는 내선일체를 부르짖으며 징용으로 끌고 갔지만 끝에는 버리는 것이 일본어예요. 사할린 동포들은 구소련의 노동력 필요로 그대로 억압되었고, 이제 1세대는 몇 분만 남아계세요."

김 작가가 한민족의 '디아스포라' 마지막 작업으로 사할린을 주목한 것은 사할린 동포들이 겪은 망국의 문제는 우리 민족이 겪은 근현대사의 웅어리와도 같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많은 지워지고 잊힌 역사의 아픔이지만 이들은 아직까지 그대로 간직한 채 살고 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한민족의 감회는 새롭다. 그러나 그 가해자 일본은 조금의 반성도 없다. 전범자 일본은 21C 문명국가를 자칭하면서 언제까지 그들의 잘못을 국가라는 가면으로 덮으려고 하고 있다. 그걸 김지연 작가가 사진으로 고발하고 있는 셈이다.

사진은 절규하는 생생한 언어!

남편을 따라 2년 전에 세종시로 이주했지만 세종시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다. 행정수도 세종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일제식민지, 그리고 해외동포들의 고난과 역경에 대해 공감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다큐멘터리 작가 김지연은 현재 세종시 문화재단의 예술강사로 있으면서 예술고등학교 등 많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사진예술을 가르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사진은 어떤 의미인지 물었다.

"사진은 나를 표현하는 예술이고, 사회문제에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지요. 사진은 절규하는 하나의 언어입니다."

그의 대답에는 사할린 코르사코프 항구에서 오지 않는 귀국선을 기다리는 사할린 동포들의 눈물이 배어있었다.

(출처: 세종의 소리, 황우진 기자)

[우리말로 깨닫다]

'프다'의 세상

'프다'라는 말은 우리말에 없는 단어죠. 정확하게 말하면 '슬프다'나 '아프다' 속에 들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는 '프'가 아니고 '브'입니다. 앞 받침의 하우이 연결되어 '프'로 발음 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않다'에 '브'가 붙어 아프다가 되고,

'슬다'에 '브'가 붙어 슬프다가 된 겁니다. 그런데 '프'로 발음되는 말을 보다가 그 속에 힘든 감정에 대한 어휘가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공통점입니다.

물론 아픔, 슬픔, 배고픔 그리고 하고픔. 모두 우연의 일치일 겁니다. '품'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단어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있음은 우연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주로 세상을 살면서 안 만나거나 덜 만났으면 하는 말에 '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 만날 수는 없겠죠. 안 만나기를 바라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소망이니 품지도 말아야 할 겁니다.

아프지 않고 자라는 경우가 없고, 슬프지 않고 기쁨을 알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말해서 배고픔보다 맛있는 반찬이 없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시장하면 정말 밥이 꿀맛입니다. 반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배불렀을 때는 먹기 싫은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배가 고프면 뭐든지 맛있다는 말은 한편으로 슬픔과 아픔에도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아픔이나 슬픔은 지금은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행복의 기초가 됩니다.

처절하게 아파본 사람이 행복을 압니다. 아이들은 아프고 나서 한 뼘 더 자라납니다. 키도 크고 몸무게도 늘어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기가 말을 하기도 하고, 걷기도 합니다. 아픈 만큼 성장한다는 말은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경험담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아픔이 더 큰 문제로 자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성장을 위한 아픔인지, 더 큰 고통의 예고인지 알기가 어렵다는 점은 우리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줍니다. 아이가 큰 병에 걸린 사람에게 아픈 만큼 성장한다는 말은 도움이 안 되는 위로일 겁니다.

슬픔은 경우가 좀 다릅니다. 다시 마음이 회복되는 슬픔도 있지만 그 자체로 끝인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구와의 영원한 이별은 말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하지만 슬픔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힘이 커진다는 점은 슬픔이 주는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끝 간 데 없이 슬퍼본 사람이 세상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러지 않고 알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말입니다.

요즘 주변에 힘든 사람이 참 많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슬픔과 아픔이 한 가득입니다. 저마다의 사연에 눈물이 흐릅니다. 가장 좋은 위로는 같이 울어주는 것임을 압니다. 흐느끼는 어깨를 토닥이고 감싸주는 것 만한 위로가 없을 겁니다. 슬픔은 싫은 거지 나쁜 게 아닙니다. 슬픔은 이겨내는 거여야지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픔과 슬픔이 행복으로 가는 시작점이기 바랍니다.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야 그 다음 고품이 일어납니다. 보고픔, 사랑하고픔, 살고픔 등등. 눈물 나게 사랑하고픈 세상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최근에 저는 아픈 사람을 만나서, 슬픈 사람을 만나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 슬펐습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삶이었으면 합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사할린 주민 2 명, <러시아의 지도자>경연대회 최종결승에 참가

<러시아의 리더>지도자경연대회의 최종결승이 3월 13 - 17일간 소치에서 진행된다. 경연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60개 지역을 대표하는 300명이 최종결승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한다.

지역 준결승대회에서 269명이 선발되었고 31명은 <대기자 명단>에서 감독위원회가 충원했다. 대기자 명단에는 결승 진출에 점수가 조금 모자란 사람들 중 가장 전망이 높은 사람들을 명단에 올렸다.

극동지역 단계에서 결승에 오른 사할린 주민 2명이 소치로 떠난다. 이들은 안드레이 프로토포포브 (유즈노사할린스크 <엘렉트로쉬트> 회사의 직원)와 아르쭈 로시첸코(사할린 투자유치청 직원)이다. 예선을 뚫고 마지막 시험인 '사회적 기획 실시'를 무사히 통과했다. 소치에서 열리는 최종결승의 참가자들은 100만 루블리의 교육보조금을 받으며 우승자들은 유명한 사업가나 지도자의 관리를 받는다. 이와 함께 우승자들에게는 예비지도자인재개발 사회프로그램에 참가할 기회도 주어진다.

Двое сахалинцев стали финалистами конкурса «Лидеры России»

Финал конкурса управленцев «Лидеры России» пройдет в Сочи 13-17 марта. Как сообщи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конкурса, финалистами стали 300 человек, представляющих 60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269 - определились после окружных полуфиналов, еще 31 участника добавил наблюдательный совет из «листа ожидания». В него заносили самых перспективных из числа тех, кто немного не добрал баллов для прямого попадания в финал.

От Сахалина в Сочи поедут два человека, оба вышли в финал н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этапе. Первый - Андрей Протопопов, сотрудник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АО «Электрощит». Второй - Артем Российченко, который работает в «Сахалинском агентстве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инвестиций». Они, пробившись через сито отборочных туров, сумели пройти и последнее испытание – запустить социальные проекты.

Все финалисты получают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гранты в 1 миллион рублей, а победители еще и наставника - известного бизнесмена или управленца. Также у них будет шанс попасть в специа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развития кадрового управленческого резерва.

<젊은 사할린>축제 주 일반과학도서관에서 개최

<러시아 극장의 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할린주일반과학도서관에서 3월 16일 <젊은 사할린>청년창작 축제가 열린다. 축제 참가에 14세부터 30세까지의 젊은이들을 초대한다.

사할린주 민족연합회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축제프로그램에는 예술단과 각종 음악의 솔리스트들의 공연, 각 장르의 예술(연극, 보컬, 무용, 음악, 시낭송, 미술)이 펼쳐진다.

축제의 목적은 재능을 가진 청년들을 발굴 및 지원하며 다민족의 사할린 청년들을 연합하는 예술적 기획 실현에 협력하는 데 있다.

참가자와 관객들을 위한 공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음악학교 학생들과 주 민족연합회를 대표하는 무용단과 솔리스트들이 무대에 나선다.

축제는 14시 일반과학도서관 강당실에서 이뤄진다.

Научная библиотека проводит фестиваль "Сахалин молодой"

Фестиваль творческой молодежи "Сахалин молодой" пройдет в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16 марта в рамках Года театра в России. Для участия приглашаются молодые люди в возрасте от 14 до 30 лет.

В программе фестиваля, который проводится при содействии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ов области — выступления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и солистов в разных видах и жанрах искусства (театральное, вокальное,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ое, музыкальное, художественное слово,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е).

Цель фестиваля — выявление и поддержка талантливой молодежи, содействие в реализации творческих проектов, объединяющих молодых сахалинцев разны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В рамках концертной программы для гостей и участников выступят солисты и танцевальные коллективы, представляющие ассамблею народов области, и юные воспитанники музыкальных школ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Фестиваль состоится в 14 часов в конференц-зале библиотеки.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기념

2019년 우리말 및 러시아어 문예콩쿠르

2019년 6월 1일은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학콩쿨(글짓기)을 개최합니다.

• **공모대상:** 사할린 및 연해주 · 극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현지인)

• **공모부문:** 글짓기, 체험수기

• **공모주제:** 한민족의 궁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한국어 본문 주제는 아무 제한이 없으나 러시아어로는 <우리 가족>,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통, 풍습, 사할린 한인 역사에 관련 글만 받습니다.

• **공모기간:** 2019년 5월 중순까지

• **시상:** 상장과 한국방문권 비롯한 여러상품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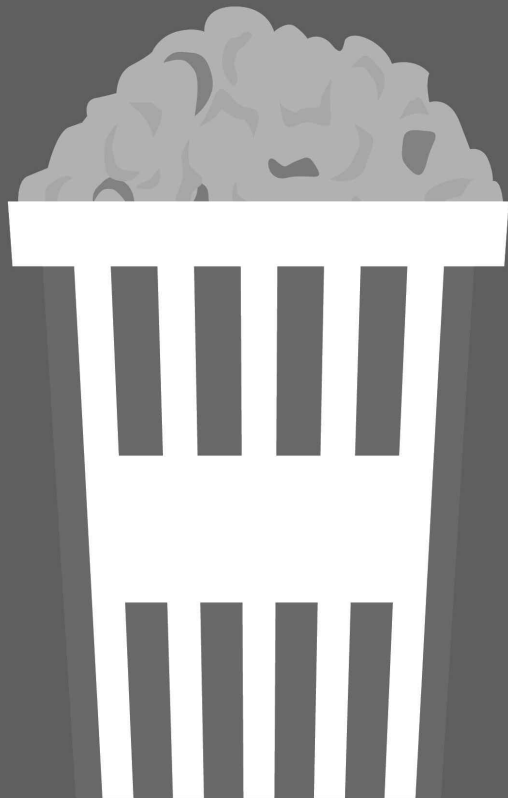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콩쿠르 자료들을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아니면 유즈노사할린스크, 체호브거리 37, 새고려신문사로 보내주십시오.

전화: 43-59-80, 43-72-94.

bilet.sakh.com

БИЛЕТЫ
в кино онлайн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ав (주필) 배 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